3 -MAY 26
Copy ____ 1959

멀고도 가까운 곳으로부터의 현지보도

△ 류례 없는 현지 파견장

나는 색다른 현지 파견장을 받았다.

내가 가야 할 목적지는 결코 먼 곳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가기 쉬운 곳은 아니다.

—수년 후의 우리 농촌

이것이 바로 나의 파견지다. 수년 후에 갈 파견장을 지금 미리 받았다는 말이 아닌가고? 아니다. 그러면 무슨 재간으로 어떻게 수년 후의 농촌으로 지금 갈 수 있겠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차차로 이야기하기로 하자.

△ 가물에 대한 개념

수년 후의 우리 농촌, 다시 말해서 논은 물론이고 밭에까지 관개 체계가 완성된 농촌에 도착했을 때 나는 학교로 가는 두 어린 소년의 대화를 들었다.

<엊저녁 너희 할아버지의 옛말 말야—>

<응—>

<가물 때면 우리 동네와 맞은 동네 사이에 물 싸움이 나군 했다지 않아?! 옛날엔 어른들두 애들 모양으루 물 싸움을 하면서 놀던 모양이지?>

<치, 것두 모르누나. 그건 저마끔 자기 논에 물을 끌어 가려구 싸움을 하던 거란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더라>

<논에 물을 대려면 논고를 열어 놓으면 되구, 밭에 물을 대려면 양수기를 돌리면 될텐데, 뭣 때문에 싸왔을까?>

<거야 뭐… 거야 뭐… 옛날엔 놀부가 있었으니까 그랬던 모양이지 뭐…>

이 어린 소년들에게는 어째서 옛날엔 물 싸움을 했었는지 리해할 수 없는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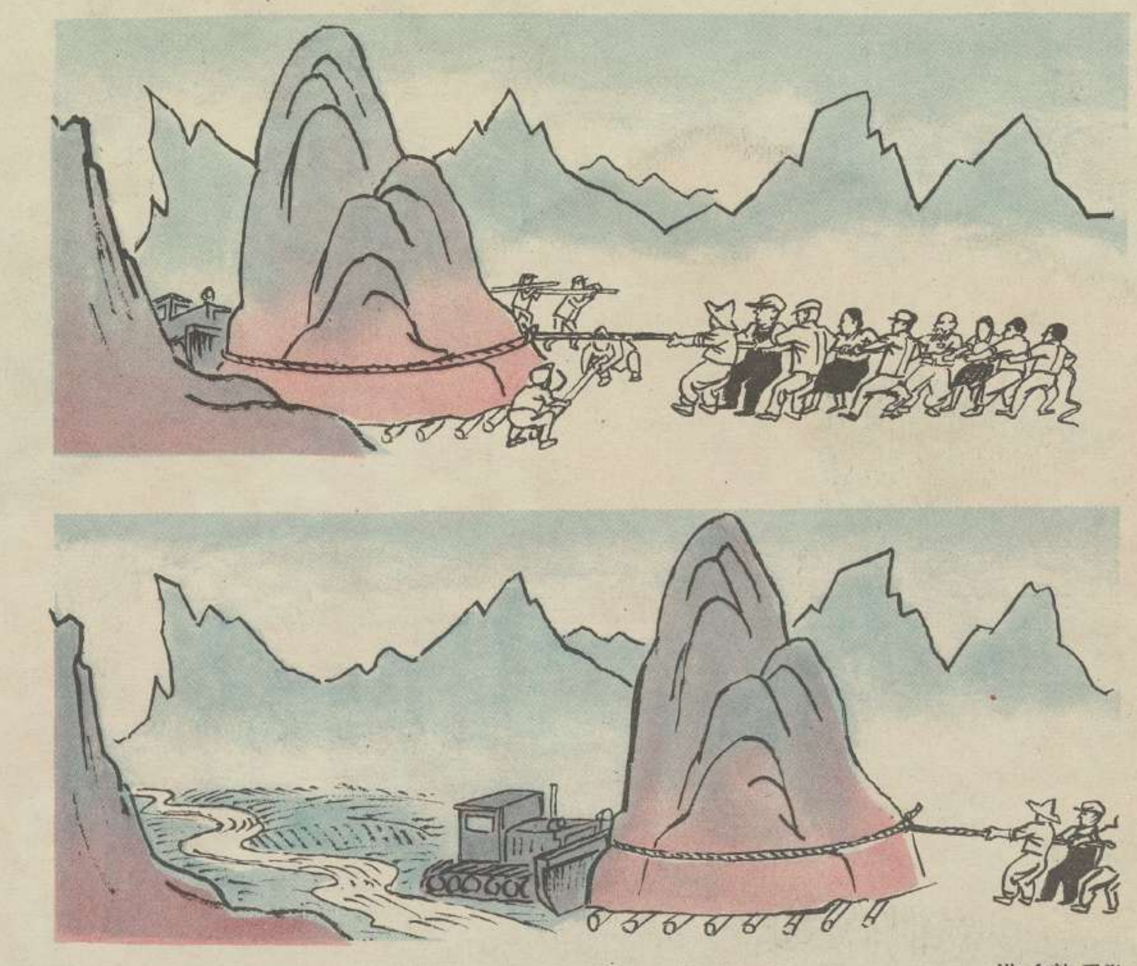
<얘, 너 가물이란 뭔지 아니?>

<치, 것두 모를까! 오래'동안 비가 안 오는거지 뭐…>

<그럼 가물 때면 무에 달라지니?>

<어니 땐 논에만 물을 대지만 가물 땐 밭에까지 물을 대지 뭐…>

태산이라도 떠 옮길수 있다



박 승히 그림

△ 홍수 소동

하루 종일 비가 억수로 내리더니 '밤새껏 계속되였다.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비는 그쳤는데 동네 애들이 저마끔 <홍수다, 홍수다!>하며 뛰여 가고 있다. 나는 애들의 뒤를 따라가 보았다.

나의 눈 앞에는 뻘건 물이 바다와도 같이 망망히 펼쳐졌다. 그러나 이것은 논과 밭을 잠그며 집을 떠내려 보내면서 사납게 흐르는 홍수가 아니고 언제에 막혀서 저수지 안에 갇힌 홍수였다. 홍수로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게 되니 애놈들이 모두 기뻐서 손'벽을 치고 좋아하고 있었다.

△새로 생긴 하나의 척도

나이 찬 처녀가 어머니와 둘이서 쏘군쏘군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은 일이 있다.

<난 그런 사람 싫어요>

<왜 그러니? 인물이 남만 못한가, 말을 남만큼 못하는가…>

<그래두 난 그런 사람 싫어요. 늙은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떨어나서 밭에까지 물을 대기 위해 관개 공사가 한창일 때 그 사람은 뭘 했어요. 사흘 거리루 꾀병을 앓구, 좀 더 쉽게 먹을 순 없을까 하구 비슬비슬 판 데루 일자리나 구하러 다니구…모두 자연을 개조하구 있을 때 그 사람은 낡아빠진 자기 사상도 개조하지 못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한테 시집 가면 일할 땐 모른척 먹을 때만 아는척 할게 안예요>

처녀들이 신랑'감을 고르는데 하나의 척도가 새로 생겼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그렇다. 지상 락원을 건설하기 위한 대 자연 개조 사업에서——이 어려우나 영예스러운 사업에서 한 일이 없는 사람은 그 지상 락원에서 영예를 차지할 수는 없지 않은가?!

물 가는데 풍년간다

가물에는 하늘만 쳐다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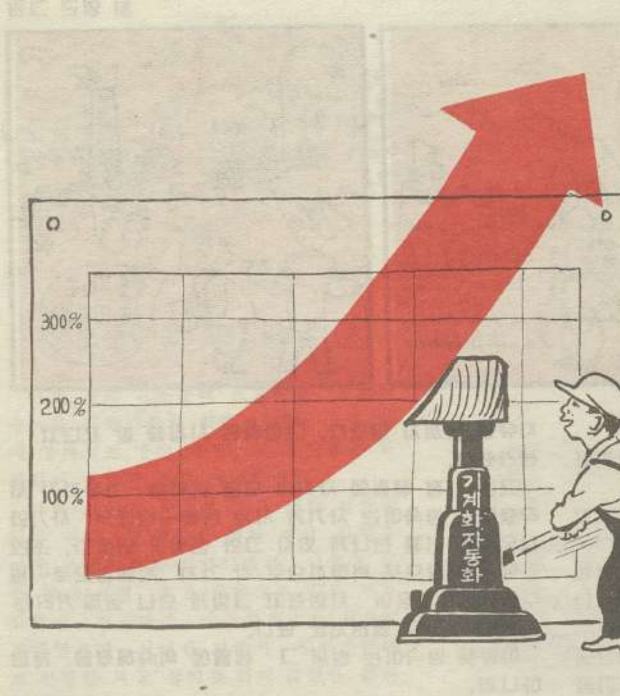
가물에는 굽어 보며 일했고

가을에는 굽어 보았다

가을에는 쳐다 보았다

허 능택 그림

기계화 자동화는 생산을 높인다



홍 종호 그림

△ 언어의 변천

<팥밥 먹었다>느니 <약밥 먹었다>느니 하는 말은 들었서도 <이밥 먹었다>는 말을 들어볼 수가 없다. 그것은 이밥을 먹지 못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하루 세끼 먹는 것이 이밥이라 새삼스러히 이밥이라고 지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저 밥이라고만 하면 의례 이밥인 줄 안다.

그것도 그럴것이 매년 700만 톤 이상의 알곡을—그 중에서 벼만도 400만 톤을 생산하게 되어 농촌에서나 도시에서나 사람들은 모두 이밥을 먹고 있으므로 그만큼 말에도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 현대의 성현들

어느 한가한 날에 동네 령감들이 느티나무 밑에 앉어서 한가스러운 이야기판을 벌려 놓았다. 그 중에도 김 서방이 제일 언변이 좋았다.

<옛날엔 누구누구해두 요'님금 순'님금을 제일 어질다 했고 다음으로 우'님금을 성현이라 했지만 지금은 성현들도 참 많아졌지. 말하자면 강 서방은 요'님금이고 최 서방은 순'님금이요, 나두 우'님금이 아니라군 할 수 없지>

<그건 또 무슨 소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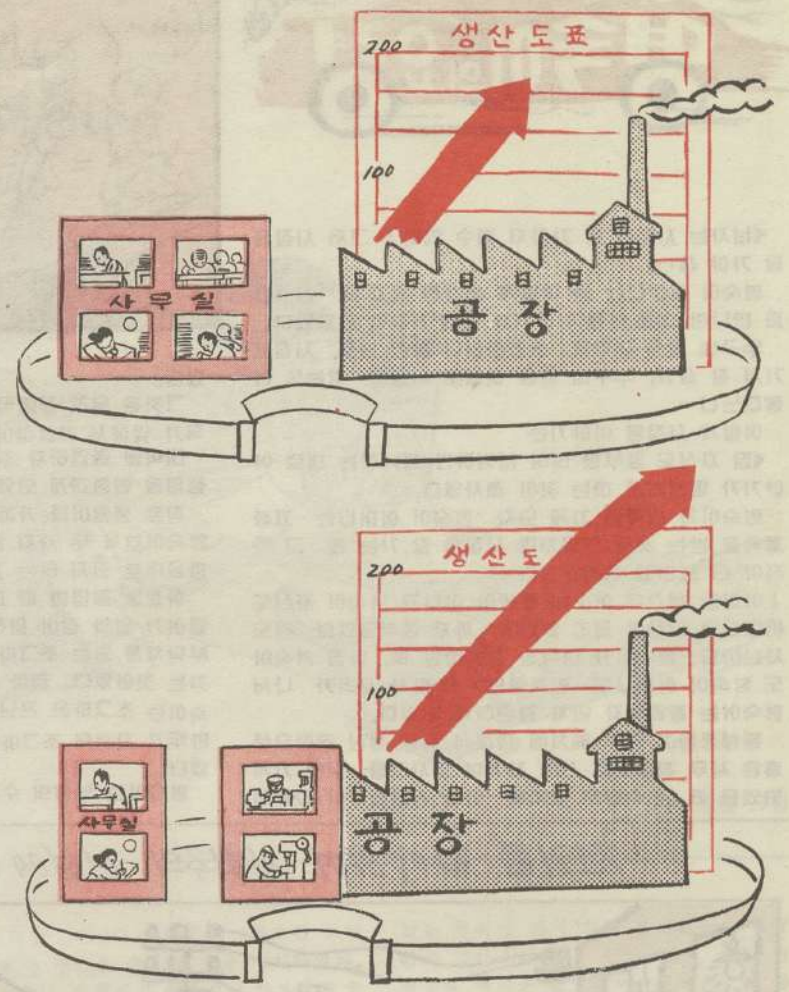
<옛날 요 순이나 우'님금두 따지고 보면 별다른 것이 아니라네. 황하에 제방을 쌓아 홍수의 해를 막아서 백성들이 잘 살게 됐기 때문에 성현이라고 하는데, 우리야 제방을 쌓아서 홍수만 막았나?! 강물을 끌어서 논에 대구, 그뿐 아니라 산 우에까지 물을 끌어 올려다 밭까지두 가물을 모르게 만들어 놨으니 사실인즉 옛날 성현들두 우리와는 비할 바가 못되지.>

× ×

인제는 약속했던대로 수년 후의 세상으로 현지 파견을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가 되였다.

그 묘득이란 별다른 것이 없다. 지금 100만 정보의 관개 면적 확장을 위해 나선 사람들의 마음 속을 드려다 보고 이를 느낄 수 있다면 일견 어려워 보이는 이 려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산이라도 떠 옮길듯 싶은 기세로 일어선 사회주의 락원 건설자들의 마음 속에는 내가 이상의 현지 보도에서 묘사한 그런 락원의 설계도가 간직되여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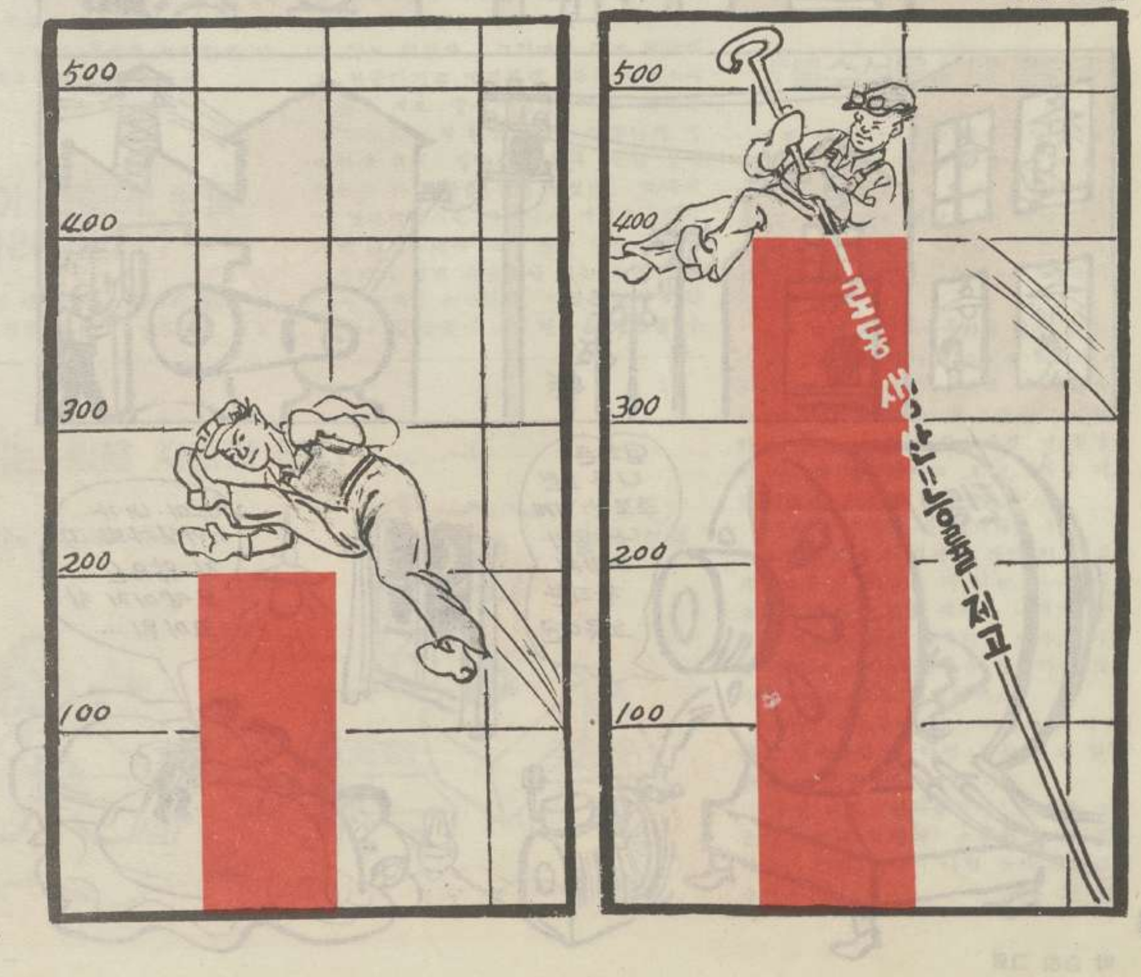
비생산 로력을 축소한 결과



최 영근 그림

천리마의 기세로!

조 명식 그림



《녀자는 시집을 잘 가야지 별수 있나! 그저 시집을 잘 가야 해…》

명숙이 어머니는 늘 이렇게 생각해 왔고 또 친구들과 만나면 의례 이런 이야기가 화제'거리로 되였었다.

누구네 딸은 대학을 졸업하더니 어떤 데로 시집을 가서 잘 살고, 누구네 딸은 어데로 시집을 갔는데 어쨌다느니…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딸 자식도 공부를 많이 시켜야만 해》 하는 데로 이야기가 돌려지군 하는 것이 례사였다.

명숙이가 대학엘 가게 되자 명숙이 어머니는 고등 교육을 받는 것도 그렇지만 시집을 잘 가는 데 그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했었다.

이러한 생각은 어머니 뿐만이 아니고 명숙이 자신도 어머니의 말씀이 일리 있다고 까지 생각되였던 것도 사실이다. 명숙이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 마침 명숙이도 명숙이 어머니도 만족할만 한 혼사 자리가 나서 명숙이는 졸업하자 인차 결혼하게 되였다.

동창생들이 상부 배치에 의해서 혹은 생산 직장으로 혹은 사무 직장으로 서로 자기의 일자리를 찾아 가게 되였을 때 명숙이도 배치에 따라 직장에 나서게 되였다.

그것은 우리 공화국에서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국가 앞에서 리행하여야 할 의무이기 때문이다.

대학을 졸업하자 결혼한 명숙이는 결혼 생활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게 되였다.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 생소하고 경험이 없는 명숙이로서 두 가지 일을 해내려니 두 가지 일이 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만 같았다.

학교를 졸업할 때 다른 동무들과 같이 생산 직장에 들어가 남과 같이 일해 보려던 그 커다란 포부는 가끔 부닥치게 되는 조그마한 곤난들 앞에서 점점 무너져 가는 것이였다. 얼마 동안 이러한 생활을 계속하던 명숙이는 조그마한 곤난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의 조그마한 테두리 안에서 만족하게 되였다.

명숙이는 남편의 수입만으로도 생활은 충분했고, 부자유를 느끼지 않았다. 그만하면 시집을 잘 갔다고 생각했다.

그는 가정 살림에 자기의 모든 정력을 기우리기 시작했다. 명숙이는 자기가 사는 아빠—트에서 자기와 같은 진옥이를 만나게 되자 그와 한짝이 되였다. 조반 후에는 시장으로 백화점으로 각 가지 직매점으로…일주를 해야 마음이 시원했고 그렇게 되니 화제'거리는 자연히 그리로 돌려지군 했다.

이렇듯 명숙이는 벌써 그 생활에 익숙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간부의 부인이 되였으니 직장엔 나가 뭘 해》 이처럼 명숙이는 자기 생활에 만족했으며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게 까지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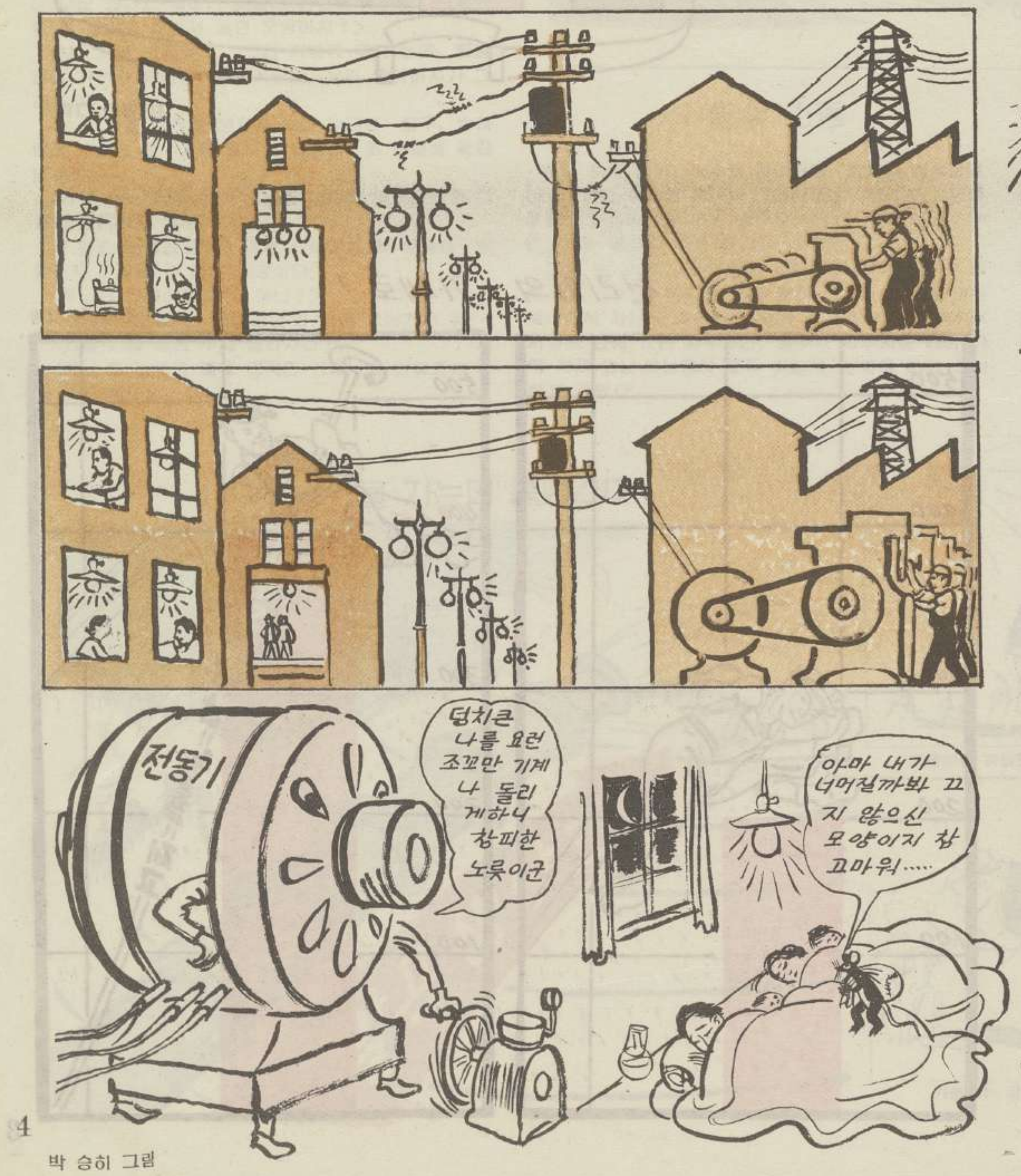
이와 같이 명숙이는 자신이 누구보다도 요령있게 사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아무도 그를 요령 있고 명철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김 상애

자체로 못 할 일이 없다

최 영근 그림

전기를 절약하여 사회주의 건설에 더 보내자



박 승히 그림

이런 것은 고칩시다

현실을 보지 못하고

인민 경제 각부문에 소요되는 선철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미 오래 전에 당에서는 황해 제철소의 용광로를 확장하여 복구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금속 공업성 흑색 광업 관리국 일부 지도 일'군들은 철광 건설 사업을 아주 소극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들은 천동 광산 개천 로천 채굴장의 박로 제거 작업을 지금까지 수공업적으로 서서히 진행했으며 서해안 지구의 철광산들에도 완전한 채굴 설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계화가 되지 않은 것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1957년부터 황해 제철소의 용광로를 배로 확장하여 복구하기 시작하였다. 때문에 김책 제철소에 소요되는 철광석도 겨우 보장하고 있는 형편에서 앞으로 황해 제철소가 복구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철광석을 보장할 수 있도록 늦었으나 그때부터라도 철광산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했다. 그러나 보수주의에 사로잡힌 관리국 일부 지도 일'군들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배로 확장해서 신설하다 싶이 하는 거니까 그리 빨린 되지 않으리라. 그래서 철광산들에는 다른 부문에서 쓰다 파괴된 극히 리용률이 낮은 설비나 주고 천동 광산에 투자할 자금은 후방 건설에 돌리면서 작년 철광 건설 계획을 79.5% 쯤 해 놓았다. 그러나 금년에 들어 와서도 그들은 천리마로 달리는 현실을 보지 못하고 철광산 건설에 대한 설계와 기술적 결론도 없이《건설과 박토 제거를 선행시키라》고 구호만 불렀다. 결과 상반년도 철광 건설 계획은 69.7% 밖에 하지 못했다. 8. 15까지에야 겨우 준공되리라고 하던 황해 제철소 용광로 건설을 5. 1절 전으로 로동자들이 끝내리라는 것을 보수주의자들이 어이 알았으랴! 배로 확장된 용광로가 예정 기일보다 앞당겨 조업을 개시하자 제철소에서는 광석을 빨리 보장해 달라고 독촉이 올라왔다. 그 때에야 흑색 광업 관리국에서는 바빠나서 광산들에다 〈생산을 증가하라〉〈건설을 촉진시키라〉 련달아 지시를 떨구었다. 그러나 아무리 보파친들 어떻게 그 즉시로 용광로의 수요를 보장할 수 있겠는가. 때문에 철 성분을 균일화하기 위하여 최소 3~4개월 분의 철광석을 보유해 두고 써야 하는데 지금 차판에서 실어 오는 그 길로 쓸어 넣고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철 성분이 균일하지 않아 매회마다 제 용량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관리국 일부 일'군들의 보수적이며 소극적인 지도는 선철 생산에 이렇게 큰 지장을 주었다. 때문에 관리국 일부지도 일'군들이 보수적이며 소극적인 지도 방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천리마로 달리는 현실을 제때에 그리고 정확히 인식하고 지도를 그에 적응시켜야 할 것이다.

《발전된 형태》의 보수주의

홍 종호 그림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던가?

오래전부터 당에서는 도시와 농촌 공장들을 현대적인 조립식 방법으로 건설할 것을 예견하고 거기에 필요한 소형 강재의 생산을 증가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안일성과 소극성에 사로잡힌 금속 공업성 흑색 금속 공업 관리국 일부 지도 일'군들은 이 지시를 어떻게 집행했는가?

(계획 과제를 140%나 초과했으니…)

그들은 작년 계획을 완수한데 크게 만족하고 증산 예비를 탐구할 토의도 하지 않았다. 강선 제강소의 선재 압연 직장 개조 공사가 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아 소형 환강 생산 과제를 보장 못할 우려가 있었으나 이들은 이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작년 년말까지 완공하기로 예견했던 강선 제강소의 압연기 개조 공사가 4개월이나 늦어져 성'적으로 소형 환강 생산을 엄청나게 미달하게 되여 평양시 건설과 인민 경제 전반에 큰 지장을 주게 되였다. 그제서야 관리국에서는 바빠나서 예비를 찾아 황해 제철소에다 소형 환강 생산 직장을 신설하고 성진 제강소에 있는 소형 압연기의 능력을 높이였다. 이것은 관리국 일부 지도 일'군들이 소형 환강을 생산할 수 있는 예비가 적지 않게 있었음에도 탐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만일 미리부터 예비를 탐구하여 최대한으로 증산하는데 노력하였다면 금년 증산 과제를 8개월 동안에 6,200톤이나 미달하지 않았을 것이다.

흑색 금속 공업 관리국 일부 지도 일'군들의 소극적이며 침체한 지도는 소형 환강 생산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었다. 관리국 일부 일'군들의 예비를 찾는 눈을 가리웠던 소극성과 침체성을 시급히 씻어 버릴 때에만이 그들의 눈은 밝아질 것이다.

『특수성을』 내 걸고

김책 제철소 내화물 직장은 지금 소성로 회전 시간이 16~17일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60톤로에서 회전 시간이 3.5~4.5일이다. 김책 제철소의 소성로가 비록 이보다 두 배의 크기를 가졌다 하며라도 소성로 회전 시간이 근 4배까지는 필요치 않다.

지금 김책 제철소 내화물 직장 일'군들은 1~2일이면 가능한 요적을 3~5일에, 3~5일이면 가능한 소성을 7~9일에, 1~2일이면 할 수 있는 요출을 3~5일에 하고 있다. 그러나 상부에서 이 공정들의 시간을 단축하자고 하면 직장 지도 일'군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석탄이 나빠서 안 됩니다〉

그런데 소성로 회전 시간이 이 직장에서 〈고정 시간〉으로 돼 있는 16~17일이 초과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공정들을 전보다 훨씬 단축하군 한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공정들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래서 지도부에서는 소성로 회전 시간을 단축하자고 하면 직장 지도 일'군들은 또 보수성을 나타낸다.

〈우린 다른 나라들보다 온도를 높이 굽기 때문에 그렇게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오작이 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리 운봉

홍 종호 그림

보수주의자는 있을 자리가 없다

위생문화사업이 락후한 구석

확 인 증

《엄마 이 밥 못먹어 ! …》

《어째 ? 》

《엄마 밥에 이쟈 파리 앉었댔어, 못먹지 ? 응 ? 》

아침 밥상을 차려 놓고 딴 일을 보다 들어 온 어머니에게 네 살짜리 춘화가 이렇게 조잘거렸댔다.

이렇듯 어찌다가 파리가 한 마리 들어 오면 두 살 세 살짜리도 서로 다투어 따라다니는 것이 보통사로 된 요즈음이다.

만약에 이 어린애들이 창광 식료 생산 판매 협동 조합엘 갔더라면 의례히

《엄마 저거 다 못먹지 응 ? 》 하고 물어 보았을 것은 틀림 없다.

이 식료품 가공 공장에서는 많은 아주머니들이 날마다 많은 식료품을 가공하고 있다.

공화국 전 지역에서 위생 문화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전 군중적 사업이 버러진지 이미 반년, 공화국 어느 도시나 마을, 공장이나 농촌, 매 가정에 이르기까지 깨끗하고 아름다운 락원으로 되여가고 있다.

그런데 이 식료품 가공 공장에서만은 세 번씩이나 련거퍼 불합격증을 붙이게 되였으니……

썩은 가마니, 악취 나는 오률더미는 구석 구석에 쌓여 모기, 파리가 꼬이게 버려둔 채 그대로 쌓여 있으며 식료품 가공 용기에도 파리들이 붙어다니는 형편이다.

8월 9일 처음 위생 검열에서 불결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확인증을 썼다. 또 8월 30일에 두 번째, 9월 13일에 세 번째 확인증을 계속 쓰게 되였다.

식료품을 가공하는 이 공장에서 다른 곳보다도 더 깨끗해야 한다는 것은 아주머니들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시련만. 내 집이 아니니… 내가 먹을 것이 아니니…

위생 검열에서는 확인증이나 쓰는 것으로 대신하려는지…

주인 없는 합숙

평양 건설 관리국 산하 6트레스트 합숙은 위생 검열에서 왜 한 번도 합격해 본 적이 없을가? 그 리유는 합숙 환경 정리 불결, 취사장…파리가 많고 불결, 쥐가 많이 있는 것, 취사원들의 개인 위생 불결, 위생복, 위생모 없음 등이 불합격의 중요한 리유로 되고 있다.

그런데 왜 이렇듯 이 합숙의 위생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을가?

사감 선생님의 말씀……합숙내의 일체 위생 문화 사업에 대한 책임이야 전적으로 위생 지도원에게 달렸 있지요, 어데 그게 사감이 할 일인가요 원…

위생 지도원의 말씀……청소 위생 문화 사업이 그리 간단하게 되는 줄 아시우, 없는게 많아서요, 청소를 하려니 도구가 있어야지요, 입으로 물을 떠 올 수도 없는 일이고…

합숙생들……사감도 위생 지도원도 다 모른다는 일을 우리 합숙생인들 어떻게 하겠소?

이렇듯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 합숙이니 언제까지 위생 상태를 이렇듯 락후한 채 그대로 둘려는지‥

결과는 판이하다

원 광수 그림

간데 없는 봉사성

상점, 식당들에서 봉사성을 높일데 대한 인민들의 요구성이 높아졌을 때, 우리 상점들과 식당들에서는 새로운 결의를 다지고 전체 종업원들이 인민들의 요구를 받아 들였었다.

식당 안은 정결해졌고 손님들에 대한 접대원들의 태도도 친절해졌고 점차적으로 식사도 그 질이 높아졌다.

이렇듯 봉사성은 높아 가건만 평양시 남구 국수집만은 요지음 뒤'걸음질을 하고 있다.

국수집 내부는 또 다시 불결해졌고, 국수의 질은 또 다시 전에로 되돌아 갔고, 접대원들은 또 다시 불친절해졌으며 손님용 곱부 몇 개는 아침부터 밤까지 그 곱부로 수백, 수천 명이 물을 마시게 하고 있으니…

아마 이 식당에서는 봉사성도 깜빠니야로 하는 줄 알고 계시는 모양…

김 상 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 쉬—이, 겨를 다 먹겠다

— 닭이 살 잘 찌겠군

조 현식 그림

현실은 약동 하는데

여기만은 요지경 속

수매 사업에서의 소극성

소비 협동 조합 평안남도 련맹 산하 군, 리들에서 왜 수매 사업이 굼뜨게 진행되고 있을까?

우리 당 중앙 위원회 6월 전원 회의에서 수매 사업도 강화할 데 대한 문제가 강조되였을 때 소비협동조합 평안남도 련맹에서는 도내 수매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그렇지만 그것은 연구, 지시로 그쳤고 실천적 대책이 없었다.

싸리 광주리 10,000개를 수매할 때에도 각 군에 수량을 할당 지시는 했으나 가격은 두 달 후에야 내려 보냈으니 군, 리에서는 생산 조직도 못하고 겨우 2,900개 밖에 수매하지 못했다.

이처럼 지시만 떨구면 수매 사업을 다 한거지 하고 팔장을 끼고 앉은 분네들…

왜 수매 사업이 잘 안 되느냐고 물은즉

첫째로는 수매 원천이 없습니다.

둘째로는 판로가 없습니다.

이러한 리유는 평안남도 내 수매 사업소나 수매원들 사이에서나 통하는 리유일는지 아무도 그 리유를 시인하지는 않을 터인즉 문제는 여기에 있다.

소비 협동 조합의 중심 사업이 농산물 수매 사업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소매 상점에 매달려서 수매 사업에 관심을 돌리지 않는 데 있으며 수매 사업은 수매 사업소나 수매원들만이 하는 일로 인식하고 있는 데 있다.

그래서 수 많은 농민이 여러 가지 수매품을 가지고 왔다 되돌아가야 했다.

8월에 농민들이 마늘을 수매해 달라니까 11월에 가도 자기 계획을 할 수 있으니 지금은 안 한다고—

또 다루기 귀치 않은 계란, 닭이며 부패 변질하기 쉬운 물품은 수매 대상에서 고려되군 했다.

수매원들은 자기의 수매 계획 책임량도 알지 못하며 수매 가격도 모르고 있으니 수매 원천 조사도, 예약 수매도 념두에 없는 일.

강남에는 개가 많건만 평양시에서는 얼마든지 개를 요구하는데 소비 협동 조합 강남군 련맹에서는 원천 조사도 없이 하시는 말씀이 또 멋드러진다.

《평양시는 고사하고 강남 식당에서 매일 다섯 마리씩 필요한데 다섯 마리씩 날마다 잡다가는 강남개 종자까지 없어지겠다…》 고

이렇듯 념려병에 걸리신 이곳 수매원들, 고자재 수매 원천도 무진장으로 널려 있건만 한 번도 조합원들에게 선전해 본 일이 없다. 조합원 총회에서 선전한 다음날로 단곡리, 신정리에서만도 13만원, 10만원씩 고자재를 수매했고 44톤의 고철을 수매할 수 있었으니 수매원들의 소극성도 그만하면 짐작되는 일.

수출품 수매에서도 소극성은 마찬가지로, 도 련맹 지도 간부들, 해당 일'군들도 수출품 해당 물품조차 모르는 형편이니 수출품 수매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못 되는 일…

밤 수출 계획이 40톤인데 수매한 것은 140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1톤도 수출하지 않고 있다. 선별 포장의 손이 많이 가니까, 차라리 그만 두는 편이 말썽이 없음직해서…

외화 획득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오리털, 닭털도 농민들에게 선전을 하지 않은 결과 날마다 그대로 날려 보내고 있는 셈이다.

농민들에게 선전한 결과

《그런 줄 알았더라면 벌써 모아 놓았을 것을, 돈을 다 날려 보냈다》고 까지 말하는 형편이다.

피마자, 해바라기도 역시 마찬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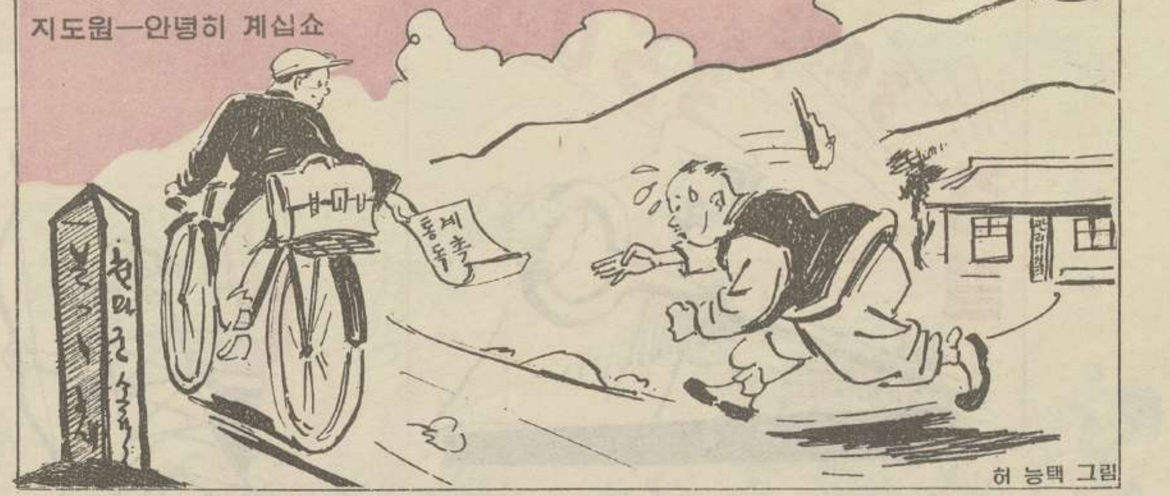
소비 협동 조합 평안남도 산하 일'군들의 무책임성과 소극성에 의하여 평안남도내 수매 사업은 극히 락후한 형편에 놓여 있다.

모범 수매원들의 창의 창발적 제의들을 일반화하여 수매 사업에서 일대 혁신이 있어야만 천리마로 달리는 오늘 현실에서의 언권을 얻음직하다.

김 상 애

주마 간산식 농촌 지도

평북도 천마군 인민 위원회 지도 일'군들은 농업 협동 조합 지도 사업에서 구체적인 실정을 파악하고 내부 사업 조직을 지도할 대신에 통계 수'자만 채우려고 독촉하는데 그치는 경향이 있다.



허 능택 그림

아름답게 지어 놓고

이렇게 관리하고

허 능택 그림

군농업부들에서

지도를 못받게 된 래력

도 농업부에서 종성군 어느 농업 협동 조합으로 지도를 내려 갔다. 조합 사업을 검열해 본즉 일이 잘 되지 않고 있었다. 규약과'내부 질서 규정조차 없는 것이다. 도에서 나온 지도원은 물었다.

《왜 아직 조합 내부 질서 규정조차 없소 ? 》

《내부 질서 규정을 만들려고 했드랬지요. 그런데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몰라서…우리 관리 일'군들의 잘못이지요》

《군에서 내려 온 지도원들이 가르켜주지 않습디까 ? 》

그러자 관리 위원장은 대답했다.

《우리 조합은 교통이 불편하지요》

《교통 불편한 것이 여기에 무슨 관계가 있소 ? 》

《관계가 있지요. 우리 군에서는 교통이 편리한 데만 지도를 나가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조합은 그놈의 길 때문에…》

《아니 길이 좋아진지가 좀 엄마 되지 않소》

《요 엄마 전부터 길이 좋아졌지요. 그런데 우리 조합 일이 지금까지 잘 되지 못한답니다.》

《그럼 지금은 지도를 자주 나오겠구만요.》

《아니지요. 지금은 지도를 안나오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조합이 일이 잘 되면 자주 지도를 나오시겠지요》

《아니 그건 무슨 소리요??》

관리 위원장은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대답했다.

《우리 군에서는 지도하기에 골치가 아프다고 락후한 조합엔 지도를 안나오고 일이 잘 되는 조합에만 지도를 나간답니다》

많은 사람이 동원 되였는데

경성군 인민 위원회 농업 부장으로부터 금년 상반년도에 연 5,700명의 인원이 협동 조합들을 지도했다는 보고를 듣고 집중 지도를 나온 도 지도 그루빠 책임자는 매우 만족해 하였다. 이제는 그야말로 책상 머리를 떠나 산 지도를 하고 있군.

도 지도 그루빠에서는 군 농업부 일'군들과 함께 협동 조합들에 내려 갔다. 그러나 군내 협동 조합들의 사업을 검열해 본즉 많은 조합들의 사업이 잘 안되고 있었다. 7월까지도 작년 결산 총화를 못한 조합이 있는가 하면, 적지 않은 조합들이 7월까지 년간 생산 계획도 없이 사업하고 있고 무계획적으로 일한데서 제초할 때를 놓치어 적지 않은 땅을 묵인 조합과 부분적인 땅에는 파종도 못한 조합조차 있다. 연 5,700명이나 동원되여 지도했다는데 왜 초보적인 내부 사업조차 안될가? 도에서 내려온 지도원은 군 지도원에게 물었다.

《연 5,700명이나 되는 인원이 지도했다는데 왜 이렇소? 지금까지 작년 결산 총화를 못한 조합이 다 있으니…》

《사실 그 부문엔 지도를 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합 내부 사업에 지도를 못했으면 연 5,700명이나 되는 인원이 뭘 지도했소 ? 》

《모두 깜빠니야에 동원되였지요.》

《뭐요??》

년간 생산 계획서에 대한 이야기

김책군의 한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위원장이 비준 받기 위해서 제출했던 협동 조합 년간 생산 계획서를 찾아 가지고 군 인민 위원회 농업부를 나오다가 이웃 협동 조합 관리 위원장을 만났다.

《무슨 일로 왔댔나 ? 》

《년간 생산 계획서를 찾으려고》

《나도 그걸 가지고 오는데 당신네 조합에선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가 좀 보세》

그리고 비준된 계획서를 보더니

《아니 제일 중요한 기본 작업 계획하구 로력 투하 계획, 로력 조절 계획은 왜 없나 ? 》

《뭐, 그런 것도 필요한가 ? 농업부에서는 아무 말 없던데》

《그 조합만 특별히 필요 없지 않을테니까 다시 가 물어 보게》

먼저 왔던 관리 위원장은 다시 농업부로 들어 갔다.

《지도원 동무, 누가 보더니 여기에 뭐 제일 중요한 기본 작업 계획하구 로력 투하 계획하구 로력 조절 계획이 빠졌다고 하는데 좀 봐 주시우》

지도원은 다시 계획서를 검토해 보더니 계획서를 들고 농업부장실로 들어 갔다. 그리고 좀 있다 나오더니

《빠졌구먼, 가져가서 다시 작성해 오우》

이처럼 김책군 인민 위원회에서는 계획 사업을 형식적으로 지도했으니 가장 중요한 기본 작업 계획과 로력 투하 계획, 로력 조절 계획이 없는 11개의 조합의 년간 생산 계획서가 농업부장과 군 인민 위원장의 비준을 받은 것이 우연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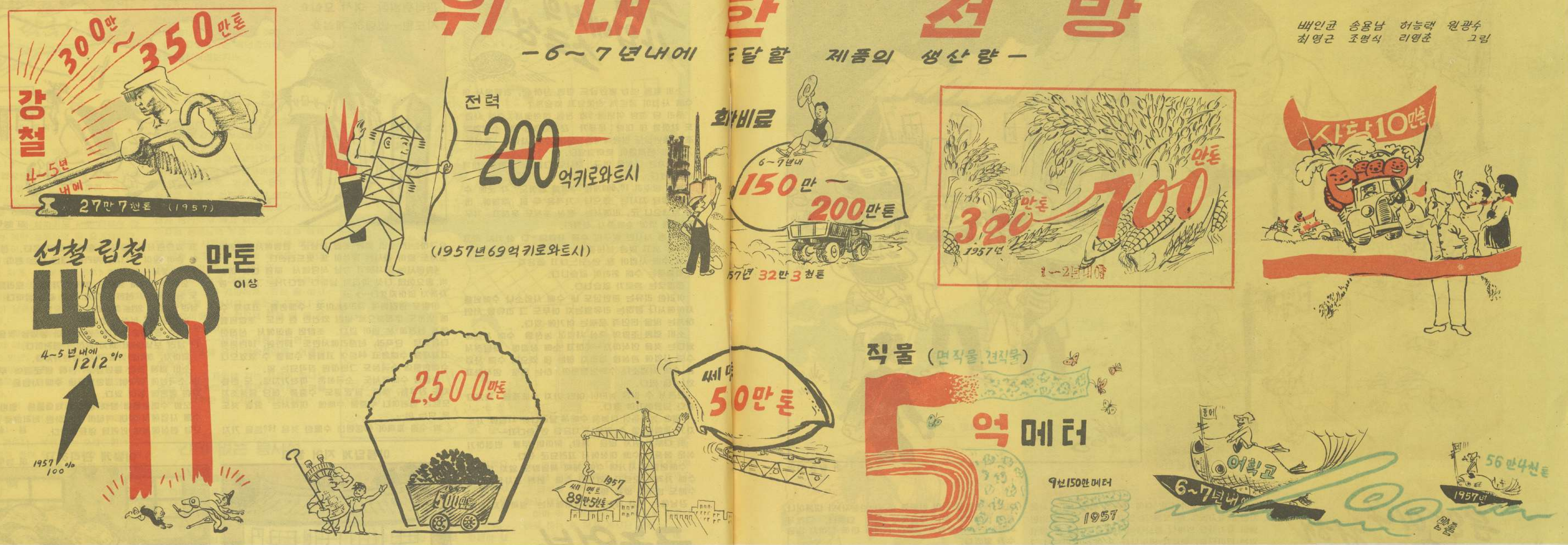
계획서가 자기들의 손을 거쳤으니 (수표를 하노라고)그들은 지도를 했다고 생각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지도는 안한 것과 무엇이 다를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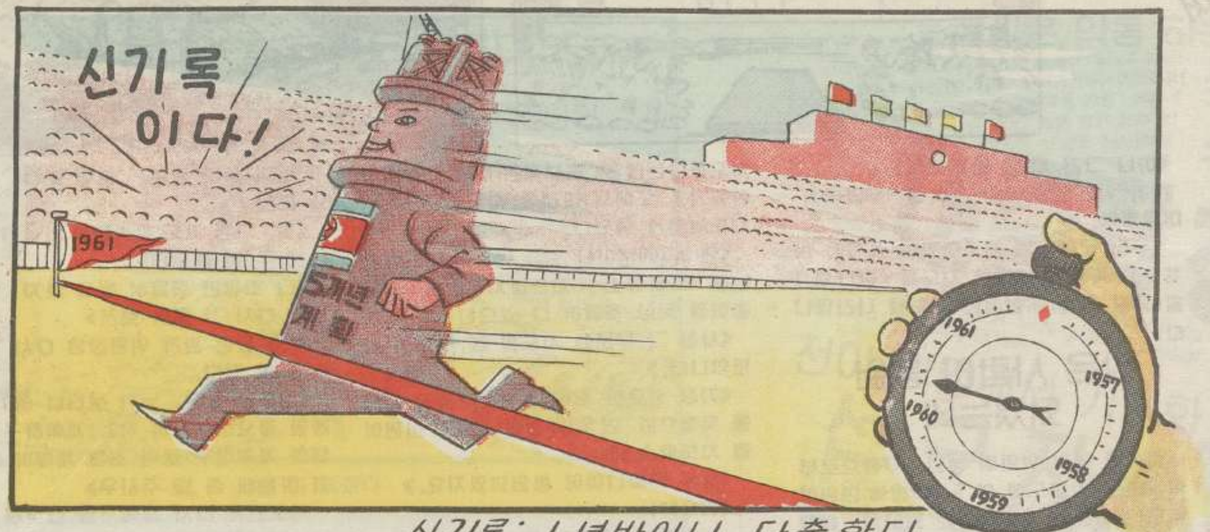
리 운 봉

위대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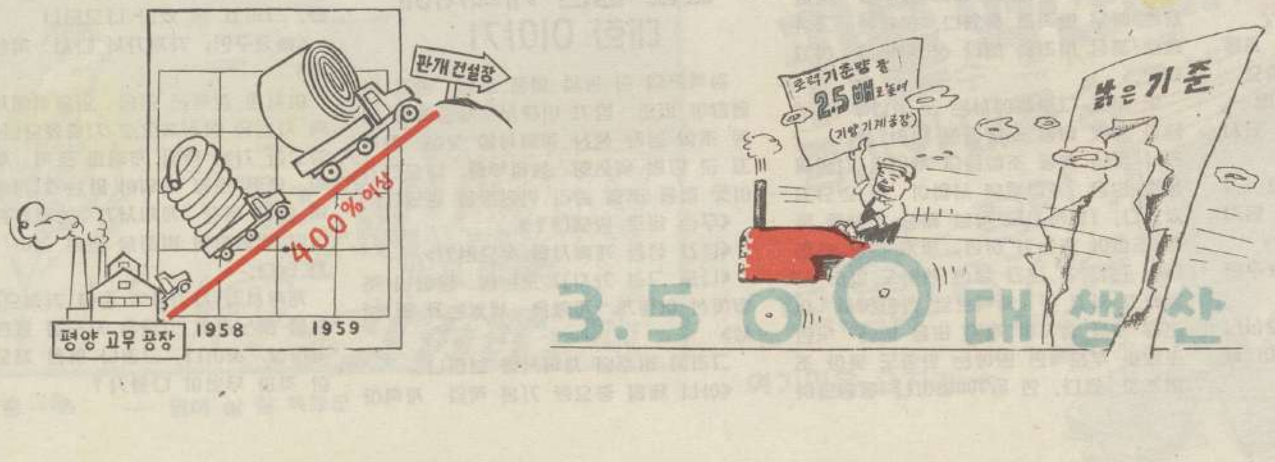
—6~7년내에 도달할 제품의 생산량—

배인균 송용남 허능락 원광수
최영근 조명식 리영춘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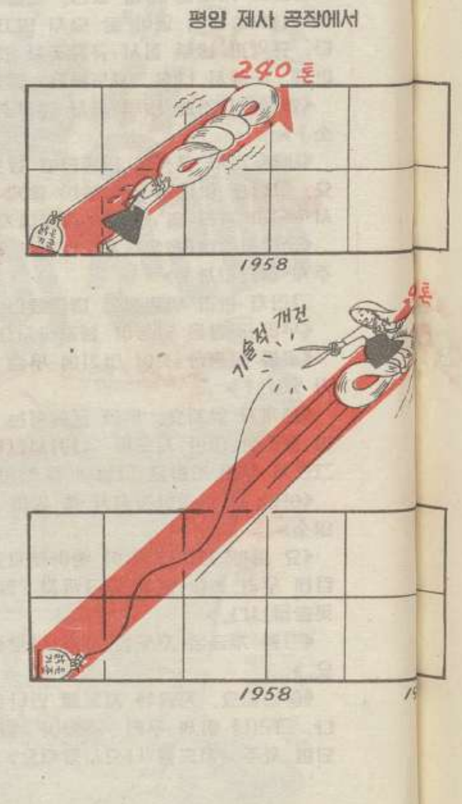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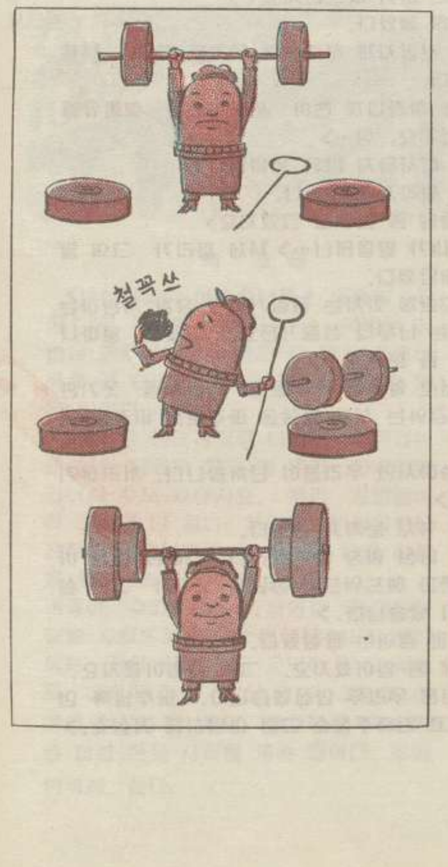
신기록: 1년반이나 단축한다



천리마의 기세로



철곡쓰의 위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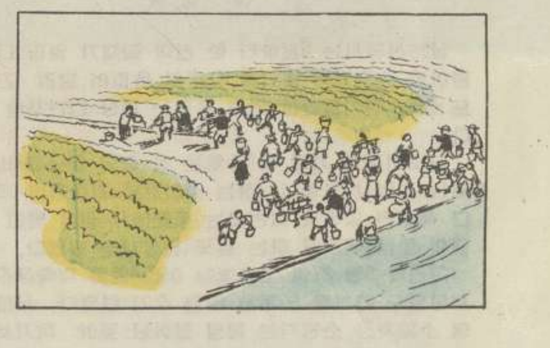
한고 꿰는 새에 한태미를 꿨다

집단적 혁신 전람회장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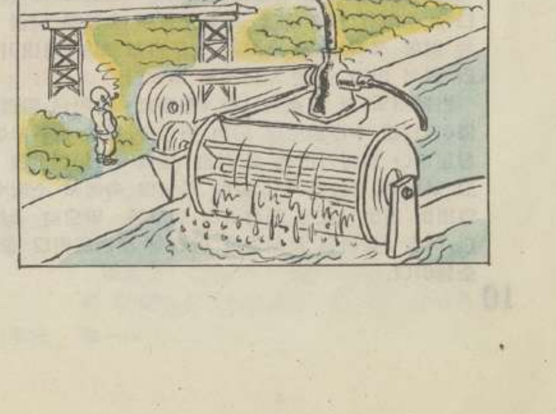
—전람회가 대성황이로군
—전람회는 울타리 밖에까지 연장되고 있소

산새보다 빠르다

백사람의 일'손을



한대의 기계로…



어머니의 심정으로 부른다

조 명식 그림

길목을 지킨다

원 광수 그림

남조선 로동자들의 처지

일러도

집도

잠'자리도 뺏은 놈들

몰아내야만 살수가 있다!

백 인균 그림

겨울이 닥쳐 왔다(남조선)

리승만의 월동 준비

미제—이걸 갖다 논아 주시오

—저 고양이는 따스 해서 참 좋겠네

— 가마니나마 좀 더 컸으면

—마지막 옷까지 잡혔는데 며칠 끼니나 될는지

설상 가상

리 영춘 그림

문안이나 전해 주십시오

유 향림

남조선에서는 5분마다 한 건의 화재가 일어 나는 형편이라 소방차가 경적을 요란히 울리며 달려 간다 해도 별반 특기할만한 일도 못되는 일상 다반사로 여긴다.

남조선에서 가장 자주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비상 경계니 초비상 경계니 하는 것이므로 경관들이 거리마다 해파리 널리듯 널려서는 곳곳에서 길을 막고 행인들의 몸을 뒤지고 하는 일도 일상사로 되였다.

그러나 9월 27일 오후에는 이런 일에 익숙해진 서울 시민들도 긴장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서울 시내의 소방차란 소방차는 몽땅 털어난 듯이 여기서도 앙앙 저기서도 앙앙하며 내달리는가 하면 경관들이 목목이 지켜서서 일대 검색이 시작되였다.

누구나가 무슨 일인가 웬 일인가 하고 눈이 둥굴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졌다. 그러자 《중앙청》에 불이 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매국노들의 소굴에 불이 났다는 말에 적지 않은 흥미를 느끼면서 지붕 꼭대기로 올라 가서 바라 보는 시민들도 많았다.

먼데서도 이 지경이니까 《중앙청》 안팎은 말할 것도 없이 일미 수라장으로 되여 버렸다. 4층 중앙부에서는 창문마다 남실거리는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를 내뿜고 있었고 경관들의 삼엄한 경계망 속에서 소방수들이 덤비며 돌아 갔다. 책상이며 의자를 밖으로 날라 낸다, 3층 4층에서 문서들을 아래로 내려뜨린다 하고 대소동이다.

일제의 총독부이던 이 집에 둥지를 틀고 있는 자들 자신이 자기들의 한 짓을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인민들이 자기들을 얼마나 증오하며 원망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터이므로, 화재가 일어나자 곧 이것이 반드시 그 어떤 《불온분자》의 소행이라고 단정한 것도 리유 없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중앙청》안으로 일 보러 들어 갔던 사람들 중에서 이십 여 명이 당장 체포되였고, 신수 사납게도 바로 그 시각에 그 근처를 통행하던 시민이 삼십 여명 체포되였으며, 경관들은 그 부근 일대의 집들까지 가택 수색하는 데 착수했다.

밖에서나 외래자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하던 관리들끼리도 이 돌발 사건이 일어나자 서로서로가 믿을 수 없어져서 서로 의심하고 경계하고 감시하고 서로 밀고 하고 야단 법석이였다.

그러나 불은 전체에 연소되지 않고 곧 꺼졌다. 4층 중앙부는 본시 일제의 총독이 있던 부분이라 콩크리트로 튼튼히 지었던 곳이여서 연소를 면한 것이다.

불이 다 꺼진 뒤에도 비상 경계만은 풀리지 않았다. 방화한 자가 누군지 잡아내야 했다. 그러나 이런 대대적인 비상 경계와 일대 검거 선풍을 일쿠었었지만 결국 방화범은 미국 소년들이라는 것이 들어나고 말았다.

4층의 화재가 일어난 현장 부근에서 미국인 소년 3명이 박수 갈채까지 해가며 좋아라고 낄낄거리며 이 소동을 구경하고 있는 것이 처음부터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었다. 무슨 폭동이나 반란이 일어난 것이나 아닌가고 지레 짐작하고 얼굴 빛이 백지장 같아져서 좌왕우왕하는 고관대작들을 볼 때마다 이 미국 소년들은 더욱 기뻐 날뛰였다. 그래서 요 자식들의 장난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은 사람이 한 둘이 아니지만 아무도 그런 말을 감히 입밖에 내지 못했었다. 설사 그것이 사실이고 이 미국 소년들이 방화한 것이 판명된다 하드래도 그것을 신고한 사람이 무사치 못하리라고 모두 생각했기 때문이다. 더우기 요즘은 공무원 대량 해고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리 병훈이란 하급 관리의 경우는 그럴 여유가 없었다. 진화된 후에 범인 수사가 더욱 본격적으로 전개되였는데 4층 중앙부의 일직이던 그에게는 많은 혐의가 걸리게 되여 방화를 한 《반란분자》와 내통이나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까지 받게 되였다. 그래서 3명의 미국 소년들의 수상한 행동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경감 한 분이 경위 한 분과 통역을 대동하고 3명의 소년 앞에 나타났다. 그런데 소년이라곤 하지만 9세 짜리와 14세 짜리는 소년이라고 할 수 있지만 17세 짜리는 경감이나 경위보다도 키가 크다. 17세라면 조선식으로 한다면 18세가 아닌가,

〈안녕하십니까. 오늘 화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당신들께서 아시는 바가 없으신지요?〉

경감이 정중히 물었다.

17세 짜리는 건방지게 히죽히죽 웃기만 한다. 14세 짜리가 대답했다.

〈톰이 자꾸만 하라니까 쫀이 쓰레기통에 휘발유를 치고 불을 질렀지요, 뭐…〉

〈아하…그건 신사답지 않은 일입니다〉

이 말에 9세 짜리가 대답했다.

〈조선 신사들을 좀 보려고 그랬지요〉

〈가만 있어 내가 말할테니…〉 14세 짜리가 그의 말을 가로채며 대답했다.

〈우리 아버지한테 와서는 굽실거리던 장관 차관하는 분들이 여기서는 너무나 점잖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점잖은지 그걸 좀 보려구…〉

세 소년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키들키들 웃기만 한다. 경감과 경위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미간을 찌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들이 난처합니다. 처리하기가 곤난해서…〉

17세 짜리는 역시 눈치가 빨랐다.

〈오케 오케, 당신 립장 알만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지요. 쫀과 에드워드가 장난을 하다가 그만 실수를 해서 불이 났습니다.〉

그제야 경감과 경위는 안심했다.

〈물론 그렇게 된 일이겠지요. 그게 사실이겠지요. 고맙습니다. 인젠 우리두 안심했습니다. 아부님께 인사를 드리더라고 전해주십쇼 그럼 안녕히들 가십쇼.〉

다리

박 노을

《보십시요, 어떻습니까? 대통령 각하! 이 사진만 보아도……》 국방부 장관은 호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어 로흉 리 승만이 앞에 내놓으며 계속 말을 이었다.

《쎄멘트 콩크리트루 다지고 다지었는데 이런 다리면 땅크 몇 대가 한꺼번에 건너갈 수도 있습지요. 우리 공병들이 이 공사를 단 일년 동안에 해 놓았으니 장하지 않습니까? 헤 헤 헤, 다리 이름은 북진교라고 명명했는데요》

《좋아 수고했소》 리 승만은 콩알만한 눈을 지릅뜨고 사진을 들여다 본다. 사진에는 길이 열 메터도 못되는 작은 쎄멘트 다리가 하나 찍혀 있다. 그래도 이만한 것이라도 새로 생겼다니 리 승만은 대견 한듯 사진을 계속 들여다 보며 만족해 한다.

《일년 동안에……? 참 날래들두 했지》

오후에는 부흥부 장관이 사진 한 장을 들고 또 경무대에 나타났다.

《대통령 각하! 다리 하나가 완공되였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편리는 물론 북쪽으로 달리는 군용상으로 보아두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그래 이게 그 사진인가?》

《네, 아주 훌륭한 이 다리엔 만족하실겝니다》 그는 호기 있게 자기의 관록을 보라는듯 사진 한 장을 남기고 돌아 갔다.

이튿날은 교통부 장관씨께옵서두 쎄멘트 다리의 사진 한 장을 들고 와 자기 투 대로 자랑을 느러놓았다.

로흉 리 승만은 며칠째 기분이 좋다.

《흥! 평양의 건설이 이만 저만 아니라고 일본 아사히신붕까지도 떠들며 사진을 실어? 우리도 못지 않다. 못하지 않어!》 그는 쎄멘트 다리가 찍힌 석장의 사진을 차례 차례 들여다 본다.

그 때다. 사회 보건부 장관이 어슬렁 어슬렁 나타났다.

《각하! 안녕하시오니까?》

《장관인가? 마침 잘 왔어, 자, 보라구, 다른 장관들은 이렇게 건설들을 했는데 사회 보건부에서는 뭘 하나 해 놓았나? 그러지 않아두 고아들이 거리를 헤맨다, 대책이 없다, 굶어 죽는다, 북쪽에선 자기들에게 넘겨 달라, 맡아서 양육하겠노라……말이 많은데 사회부 장관입 막이루라도 뭘 하나 해 놓아야겠어》

《네, 그래야 하구 말구요, 자, 보아 주십시요. 어떻습니까?》 그는 사진 한 장을 꺼내였다.

《응? 이건 뭐야? 다리 아닌가?》

《네, 쎄멘트 다리인데 겨울 바람 막이를 생각해서 고는 좀 낮추고》

《그래 다리를 놓았단 말이지?》

《네, 부흥부나 교통부에서는 꿈도 꾸지 않는 것을 소생이 일석 이조의 창의를 해 놓았습지요, 우는 도로, 밑은 루랑민들의 1등 숙박소가 저절로 생길 것이고……》

《허 허 허…좋은 생각을 했네, 파시 장관은 명관이군 그래》 리 승만은 만족하여 너털웃음까지 지었다.

때마침 애리쓰가 나타났다.

《오! 애리쓰, 이것을 좀 보오. 우리 장관들의 건설 사업이 이만 저만 아니오, 특히 이 사회 보건부 장관의 창안은 정말 기발 경천의 것으로……》

리 승만은 넉장의 사진을 쭉 애리쓰 앞에 내보인다.

《오! 승만 이건 다리들이 아니오?》

《그렇소, 사회 보건부 장관의 창안이 어떤가 좀 보우, 우는 다리, 아래는 숙박소! 루랑민들이 한겨울 떨지 말라고…》

《오! 베리 나이쓰》 만족해 하는 애리쓰의 모양을 바라보는 리 승만은 기뻐기 그지 없다. 그러나 넉장의 사진을 번갈아 계속 뚫어지게 보던 애리쓰의 눈은 고양이 눈같이 놀랜다.

《승만! 이것은 꼭 같은 사진이 아니요?》

《뭐? 뭐? 그럴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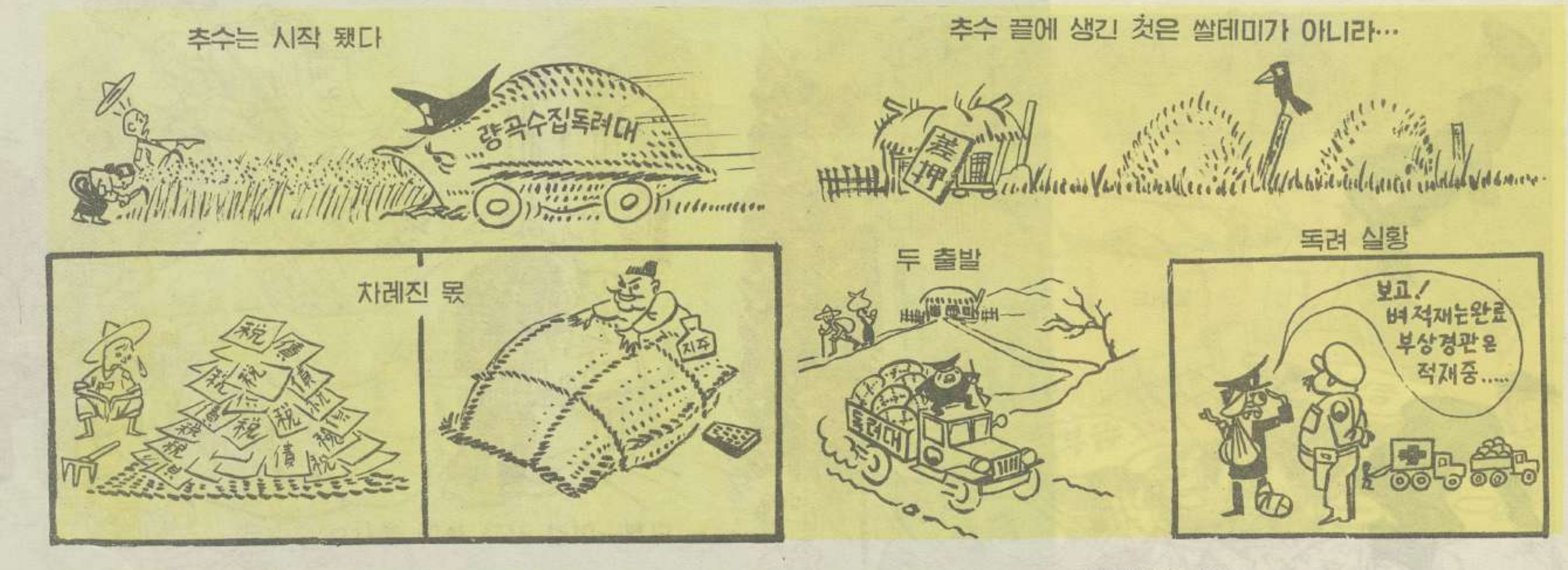
그러나 그것은 틀림 없이 하나 같은 사진이였다.

그럼 파연 열 메타도 못되는 그 다리는 누가 놓고 그 자랑들일까?

협잡과 간교가 춤을 추는 그놈들의 뒤'막이야 우리들이 알 바 아니거늘……

남조선의 추수 정경

최 영근 그림



오 홍택

박 의사가 병원에 출근했을 때 원장실에서는 또 싸움 소리가 들려 왔다.

종종 있는 일이여서 별로 주의를 돌리지 않고 진찰실로 들어가 있노라니 한 녀인이 뛰여 들었다.

《의사 선생, 아무리 망할 놈의 세상이기로서니 이런 일이야 어데 있소, 치료비가 얼마간 떨어졌다고 해서 시체를 안내주니 어떡할 작정이요》

흥분된 녀인의 말에 박 의사는 짐작되는 점이 있었다. 간밤에 죽은 환자의 치료비가 얼마간 떨어진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돈이라면 제아비 눈알이라도 빨 원장의 악착스러운 심뽀를 아는지라 박 의사는 할 바를 몰랐다.

《허허 사정은 딱하오마는 낸들 어떡허우》

박 의사는 더 할 말이 없었다. 박 의사의 누구러진 말에 녀인은 북바치는 흥분으로부터 설음이 치밀어 올라 넋두리를 시작했다.

《아이구 망할놈의 세상이야, 죽어서두 이렇게 천대받을 법이 어데 있소. 돈 없어 치료두 제대루 못 받고 죽은 사람을…아이우—이놈의 세상이 뒤집어져라.》

이때 원장과 경관이 들어 닥쳤다.

《이년! 세상이 뒤집어지라구? 사상 불온이야 가자》

경찰은 말도 끝내기 전에 녀인의 손목에 고랑을 채웠다. 경관에게 끌려 나가는 녀인의 뒤'모습을 바라보던 박 의사는 멍청해져서 상념에 잠겼다.

의사 공부를 시작할 때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를 바치겠다고 정열이 끓던 시절이 그리웠다. 자기의 정열을 바칠 수 없는 사회가 원망스러웠다. 마음이 괴로웠다.

이때 60세 가까운 할머니 한 분이 진찰실에 들어 오면서 공손히 인사를 했다.

《선생님 사람 살려 주시우. 아들이 갑자기 배를 안고 돌아 가는데 좀 봐 주시우. 입원 치료비가 모자란다구 환자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좀 봐 주시우》

박 의사는 딱하였다. 이런 일은 종종 당하는 일이다. 몇 번은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까지두 입원 치료를 시킨바 있으나 매일 닥쳐드는 그 많은 사람에게 매양 자기 주머니를 털만한 여유도 이제는 없다. 게다가 원장은 쓸데 없는 자비심을 써서 병원 수입을 떨군다구 까박을 부치는 터이다.

《사정은 딱합니다. 허나 낸들 어떻거우》

《아니 병원에서 당장 죽어가는 사람을 보구 그냥 버려 두겠소. 선생님 은혜는 갚으리오다. 좀 봐 주시오》

할머니는 거의 울다싶이 애원하였다. 박 의사는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 그는 청진기를 들고 진찰을 시작하였다. 이때 나무통처럼 뚱뚱하구 개기름이 번지르한 원장이 들어 왔다. 원장은 손을 내저으며 진찰을 중단시키고 할머니와 환자의 거동을 살피더니 좀 나가 있으라고 환자의 등을 밀어 내보내고 박 의사에게 말을 건넸다.

《박 선생, 병원의 수입면을 언제나 잊지 말어야 합니다》

원장은 위신을 차리느라고 보란 듯이 라이타를 켜서 담배를 붙이고 말을 계속하였다.

《박 선생 급한 왕진이 있소. 미국인 고문 스미스씨댁 딸님이 편치 않은 모양이오, 급히 좀 가 보우》

《딸님이라니요?》

《허 허 박 선생두, 그 오스토리야 종 말이오. 그 딸님이 병환이라우》

《오스토리야 종 딸님이라니요?》

원장의 대답에 박 의사는 더욱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다시 물었다.

《하하하 박 선생두 센스가 무디군, 스미스씨가 귀동자처럼 양하는 그 털부숭이 말이오》

《예! 그 개새끼 말입니까?》

《하하—스미스씨 앞에서 개새끼라는 말은 아예 입밖에 내지두 마시우, 끔직이두 귀중히 양하는데…》

박 의사는 어안이 벙벙했다. 기가 딱 막혀 말이 나오질 않았다.

《원장 선생, 제가 수의삽니까?》

박 의사의 흥분된 말투에 원장은 위엄을 도꾸느라구 잔기침을 하고 대답했다.

《박 선생, 스미스씨는 미국인 고문이 아니우. 나두 몇 번인가 치료한 일이 있지만 그 개루 말하자면 사람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거구, 또 그 개는 웬만한 사람보다 더 영리하구 깨끗하오 이번 왕진은 미국인의 요청이며 내 명령이오. 당신은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없소》

원장은 강박을 드려댔다. 박 의사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 많은 조선 사람들이 돈이 없다는 그것으루 한 봉지의 약도 쓰지 못하고 죽어가는 판에 더우기는 급성 맹장으로 방금 죽어가는 사람을 놓고 미국놈의 개 치료를 가라니, 박 의사는 사람에 대한 모욕감을 참을 길 없었다.

《수의사를 하려고 의사노릇을 시작한 거는 아니요》

박 의사는 모자를 집어 들고 진찰실을 뛰쳐 나왔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등뒤에서 《불손한 언사를 쓴 것을 잊지 마우》 하는 원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병원을 나섰다.

가을 하늘은 끝 없이 맑고 푸르렀다.

박 의사는 푸른 하늘을 바라 보면서 심정이 괴로움을 느꼈다. 마굴에서 벗어난 사람처럼 그는 크게 호흡을 하였다. 자기의 갈 길은 딴데 있음을 느꼈다.

홍 종호 그림

미끼 속에 낚시가 있다

송 용남 그림

조국에로의 길을 막는자는 누구냐!

리 영춘 그림

피를 빨아 먹는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모기나 벼룩이나 빈대만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다. 모기나 빈대같이 직접 피를 빨아 먹지는 않는다 해도 그와 마찬가지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일체의 착취 행위를 가리켜서도 말한다.

남조선에 둥지를 튼 미제는 남조선 인민의 로력을 착취하고 지하자원을 략탈해간 결과에 남조선 근로 인민은 뼈에 가죽만 씌운 것 같이 되고 피'기 없이 되였으니 피를 빨아 먹은 것과 무엇이 다르랴!

그런데, 미국인들의 착취가 극도에 달하게 되자, 상징적인 형용사로 쓰이던 이 말이 형용사에 그치지 않게 되였다.

〈대한 혈액원〉이란 것이 있어서 청소년들을 비롯한 남조선 근로 인민들로부터 피를 사는데 피 값의 절반은 피 임자에게 주고 절반은 〈혈액원〉의 소위 수입으로 되니, 이야말로 말 그대로의 피를 빨아 먹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그러나 조선 인민의 귀중한 피에 대해서 절반 값을 지불하는 것조차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아까와져서 9월 30일부터는 청소년들로부터 피를 강제로 그리고 공짜로 빼앗기로 결정했다. 소위 〈대한 적십자사〉를 통해서 서울 시내에서만도 3만 명의 청소년들이 피를 공짜로 제공하도록 강요할 것을 결정했는데 이에 따라 각 학교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면들이 벌어진다.

《학도 호국단 단장》이란 자가 학생들을 자기 방으로 불렀다.

〈이봐, 오늘은 적십자사 일인데…〉

〈호국단 단장〉은 방안을 한 번 빙 둘러 본다. 지금껏은 학교 안에 적십자사란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었고 책임자도 없었는데, 갑자기 필요에 따라 주먹 바람이 센 《호국단 단장》이 이 책임을 맡고 나선 것이다.

〈이봐 김군, 혈액원에 가서 피를 팔았지?〉

〈네.〉

〈언제?〉

〈한달쯤 됐습니다.〉

〈그럼 리군은?〉

〈전 20일 쯤 됐습니다.〉

이런 투로 물어 나간다. 그리고 나서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본론으로 들어 간다.

〈에또, 오늘은 대한 민국을 위하여 적십자사원의 이름으로 우리 청년들의 피를 무료로 바치게 됐단 말야. 그러니까, 선참으로 뽑히게 된 제군은 영예로 생각하고…〉

〈호국단장〉의 연설이 끝나자 김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전 피를 팔아서야 공납금을 물었는데 무료로 피를 내면…〉

〈잔말 말어, 대한 민국에 대한 충성심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야 닥쳐…〉

최군도 사정을 했다.

〈저는 피를 판지가 20일도 못돼서… 이번만은 빼주십시쇼.〉

〈잔말 말어, 대한 민국에 대한 충성심만 있다면 그런건 문제도 아니야, 가만, 잠자코 듣구 있어… 에 또 피를 내는 데 조금이라도 주저하는 자는 대한 민국에 반기를 드는 자이므로… 에헴…〉

그는 말보다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전부터 알고 있으므로 주먹으로 책상을 꽝 하고 뚜드리고 나서 부르짖었다.

〈대한민국은 제군이 피를 바칠 것을 요구한단 말야.〉

〈대한민국은 모긴가요, 벼룩인가요?〉

〈무엇이?〉

〈피를 먹고야 사는 건… 말하자면 그렇단 말입니다.〉

해고 책동과 그 후과

조 명식 그림

《월 가》에서

백 인균 그림

—저. 저. 거센 운동의 장본인은 누구냐!
—네. 저. 바로 《아브로라의 포성》 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이젠하워의 성적표

로 철

11월에 접어 들면서 미국의 정치 시장은 또다시 참새 볶아 먹은듯 떠들썩하기 시작하였다. 2년만에 한 번씩 돌아 오는 하원 선거와 상원의 3분지 1 개선이 다가 온 것이다. 그래 한배에서 나온 난형 난제로서 콩물인지 코물인지 모르게 지내 오던 공화당과 민주당이 "전통„에 따라 다시금 욺거니 뭅거니 서로 쥐여 뜯고 물어 뜯기 내기가 다시 버러졌다. 어떤 민주당 출신은 쥐를 잡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인구 1인당 무려 3,53마리씩 돌아 가도록 번식케 한 것이 공화당 정부의 "가장 큰 죄악„이라고 무려 24시간 10분에 걸쳐서 "정견„을 발표함으로써 "연설 마라손 경기„의 "신기록„을 수립하였다는 소식이며 어떤 공화당 립후보자는 전국 미인 선수권 대회에서 지난날 동구라파를 "잃어버리게 한„ 것은 민주당이 아니드냐, 그가 중국 대륙을 "내던진„ 것은 "아름다운 녀인을 물가마에 던진 소행과 무엇이 다르냐„ 하고 대성 통곡까지 함으로써 적지 않은 "절대 가인„들을 당장에 초풍 기절케 했다는 소식이며, 하여간 요새. 미국 신문 지상에는 별의 별 해괴 망칙한 기사들로 가득차 있다.

그러나 누가 어찌고 무엇이 저찌고 하여도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선거전 선전이 제일 가관일 것이다. 이 간사한 "장사'군 장군„ 녀석은 쭉으러 든 평가리 같은 제 얼굴을 수만 장의 사진에다 찍어가지고 그 우에 불손하게도 "미국의 령도자, 6년간 민주 정치의 대성적„이라고 문'자까지 달아서 선거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거리 거리에 내붙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사진에다가 "미국의 령도자„라는 것을 "미국의 핵 전쟁 령도자„라 고치고 "6년의 민주 정치의 대성적„이라는 것은, "6년간 허위 정치의 대성적„이라 고친 다음 다음과 같이 1952년 당시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으로 선거 받을 때 선거자 앞에서 한 그의 "약속„과 그후 "실행„ 성적을 밝혀 놓은 진짜 성적표를 붙여 놓았다.

《(1) 약속: "앞으로 우리는 당신들의 돈을 랑비하는 현상을 근절시키고 통화를 억제함으로써 국가 예산의 적자가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모든 힘을 다 할 것이오„ (1952년 10월 17일 데라 베르주 워밍톤에서)

성적: 1958년도 예산 적자 18억 딸라, 1952년의 7배,

평점: 2점

(2) 약속: "납세자들은 우리의 방침을 알고 있을 것이오, 당신들은 우리들이 과중한 세금과 국채 발행을 반대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오„ (동년 10월 4일 남 다코다 주 브로찐스에서)

성적: 1958년도 미국 가정의 평균 납세액 6년 전의 8.2배, 월 평균 소매 물가 등귀률은 2.9배

평점: 1점

(3) 약속: "우리 나라 인민들의 머리 우에 영원히 대규모적 실업의 죄악이 내리지 않도록 할 것이오„(동년 10월 20일 미씨시피 주 코롬브스에서)

성적: 1958년 9월 6일 현재 완전 실업자수 727만 명, 반실업자까지 합하여 1천 3백만 명 이상, 전후 최고,

평점:2점

(4)약속:"적당한 교육이라는 이 엄중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장차 각주의 교사 수리에 부족되는 예산을 방조하여 주는데 착수할 것이오„ (동년 10월 9일 카리포니아 주 로스안제르스에서)

성적: 과거 6년간 단 한건의 학교 수리 법안도 통과되지 않았음, 1957년 여름 대통령은 앞으로 교육 예산 문제에 관한 일체 안건을 국회에서 토의하지 말 것을 전화로 요구함.

평점: 1점

(5) 약속: "우리는 더욱 좋은 주택을 지을 것이며 그리하여 빈민굴 또는 적당치 않은 주택에 살므로서 건강이 나빠진 미국인들에게 제공할 것이오„ (동년 10월 27일 텍사스 주 휴스톤에서)

성적: 1957년 아이크는 도시 빈민굴을 청산할 데 대한 국회의 결의안을 부인

평점: 1점

(6) 약속 : "평화——이 하느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사업에 충실하는 것은 나와 동료의 책임이오„ (동년 11월 2일 뉴욕에서)

성적 : 애급, 웽그리야, 인도네시아, 큐바 레바논에서 류혈 사건의 책임자는 아이크

평점 : 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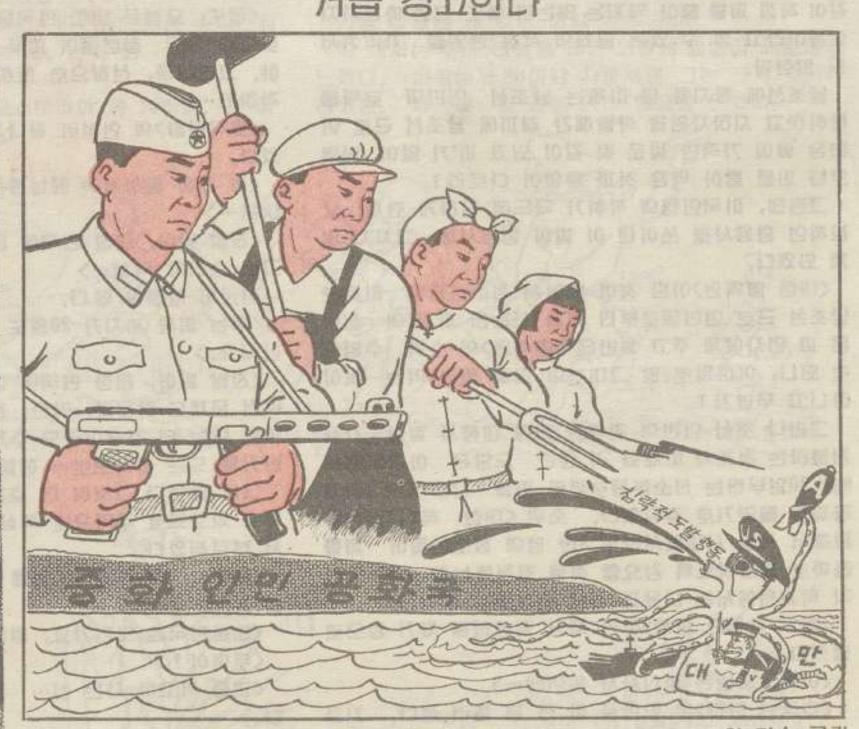
총평점 : 1점으로 락제

황아 장사 망신은 고불통이 시킨다고 제 잘한다고 한 노릇에 온 천하 망신을 당하게 됐으니 그렇지 않아도 심사 편안치 않은 아이젠하워가 요새 어떤 면상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볼만도 하다.

오전 회의는 끝났다

리 영춘 그림

거듭 경고한다



원 광수 그림

미제의 소위 《조약상 의무》

백 인균 그림

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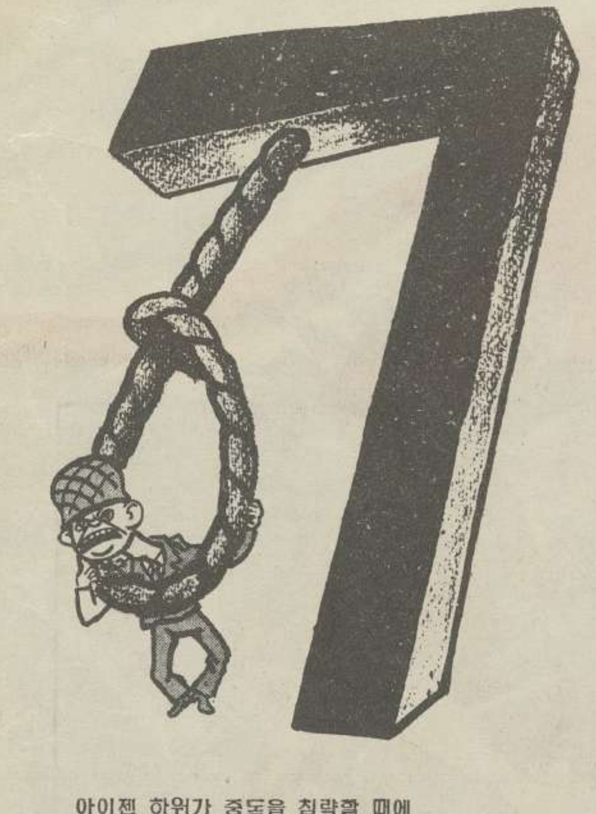
장 영익 그림 평양시

외국 만화 소개

중국 "만화„ 잡지 1958.121호에서 전재
필 극판 그림

중국 "만화„ 잡지 1958.121호에서 전재
왕 락천 그림

6과 7



아이젠 하워가 중동을 침략할 때에
제 6함대를 동원했고
아이젠 하워가 중국을 침략할때에
제 7함대를 동원했다

6 자형은 올개미 같고
7 자형은 교수대 같으니
두개의 자기 제품에
아이젠 하워가 자기 목을 내미니 황천 길을 간다

불가리야 만화 잡지 "스찌셀„ 1958. 658호에서 전재
브 • 지모브스키 그림

쏘련 만화 잡지 "끄로꼬질„ 1958.26호에서 전재
세메노봐 • 아브라모봐 그림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활 살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인쇄 1958. 11. 10 7—22761
발행 1959. 11. 15 값 (50원)

침략적 도발 행동은 자멸을 가져 올뿐이다
US
대만
허능랙 그림